

제목: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17절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금방 체계적으로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그 감사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_\_\_\_\_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 나로 하여금 \_\_\_\_\_을 갖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앞을 보며 \_\_\_\_\_을 갖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혁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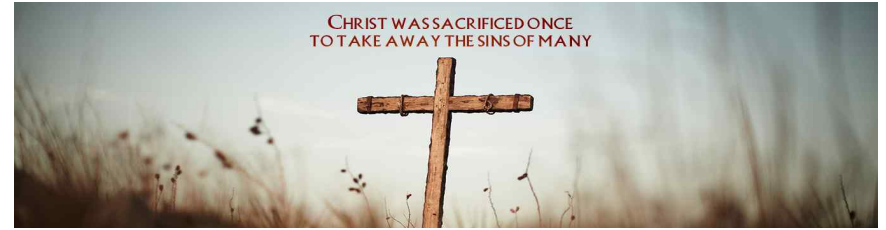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추수 감사주일 예배 Thanksgiving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디모데 전서 1장 12-17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Timothy 1: 12-17 신약 337 페이지 Presider
- 말씀 .....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591) 저 밭에 농부 나가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마음이 따라오는 감사인가?)

미국에 처음 와서 많이 들을 수 있던 말 중에 하나가 'Thank you'(감사합니다)였다. 그러다가 보니 그 말에 익숙지 않았던 나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어 얼마 후 'Thank You'라는 말을 곧잘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따라와 주지 않은 것이 있었다. 나의 마음이었다. 입으로는 상황에 맞추어 감사가 나오는데, 마음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저 나도 미국사람들 같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좋을 뿐이었다.

감사절을 맞으며 나의 감사는 어떠한 수준인가? 생각해 본다. 교회라는 곳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조건아래 자동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아닌가? 만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한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감사'다. 특별히 교회에 오면 더욱 쉽다. 또한 믿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데 과연 일상생활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나 스스로를 발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나의 '감사'는 품질이 낮은 감사였던 것이다. 오랜 기간 묵회를 해서 입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은 '감사'라는 소리였던 것이다.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26절이나 되는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들을 보면 마치 주문을 외는 것과 같은 감사가 계속 나온다. 박자가 철저하게 맞는 노래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감사가 내가 가졌던 품질 낮은 감사였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지 않다. 시편 136편의 기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부터 창조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열하며 잊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린 것이다. 그 감사는 입에 붙은 감사가 아니고, 조상 때부터 철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이라이트를 말하며 감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는지 금방알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도 시편 136편과 같은 시가 있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 나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결혼 후 나의 가족에게 주셨던 은혜, 나의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의 인생의 가파른 언덕에서 하나님이 퍼부어주신 사랑은 몇 줄로 줄여서 정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고백이다.

하지만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입에 달린 '감사'를 외우며 내가 말해야 하는 분량을 다한 것 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켓에서 돈을 내는 나에게 'Thank You'라고 하지 않은 그 사람을 껄뻐하게 여기며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나 라는 것을 외치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라고 말씀하신다.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무치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내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선사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해 본다. 올해는 추수 감사헌금 봉투에 나의 마음을 꼭 채워 넣어 드려야겠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2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대림절 시작

돌아오는 주일 (27일)부터 대림절을 지킵니다.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 6. 추수 감사주일 식사

오늘 예배 후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 7. 12월 계획

12월 10일(토) 정기당회 오전 8시  
12월 25일(주) 성탄 주일 및 성탄절 예배  
1월 1일(주) 신년예배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